

5월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축소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 금융동향서

예금은행 +1448억원→+67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820억원→+1886억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5월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발표했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8년 5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

수신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4288억원→+1,953억원)였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1,448억원→+67억원)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2,820억원→+1,886억원) 모두 증가

폭이 축소했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2,173억원→+1,111억원) 및 가계대출(+1,410억원→+622억원) 모두 증가폭 축소했다.

또한, 2018년 5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도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15,354억원→+11,577억원)였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12,243억원→+10,488억원)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3,111억원→+1,089억원) 모두 증가폭도 축소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융기관 기업대출, 2018년 5월말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21조 8,384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1,111억원 증가,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17조 3,150억원(79.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조 5,234억원(20.7%)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2018년 5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4조 1,198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622억원 증가했고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 9,86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5.9%를 차지,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10조 3,981억원(43.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3조 7,217억원(56.9%)으로 집계됐다.

5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44%로 전월(0.61%)보다 0.17%p 하락(전국0.22%, 지방평균0.54%), 부도금액은 30억1천만원으로 전월(51.0억원)보다 20억9천만원 감소했고 5월중 전북지역 신규발생 부도업체수는 3개(4월 1개→5월 3개)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세븐일레븐·이마트24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출점 제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각 본사에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 4명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사 측이 점주들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200개 가맹 본부 대상 조사를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편의점 브랜드 본사들은 조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이날 공정위 직원들이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을 예고없이 방문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올 상반기 담배 17억갑 판매... 전년비 1.6%↓

관련형 전자담배, 1.6억 갑 판매... 작년 5월 출시 후 증가세

담배 제세부담금, 올 상반기 5조5000억원... 전년비 1.5%↑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8000만 갑으로 전년동기(17억1000만 갑)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판매량 20억 4000만 갑과 비교해도 17.3% 감소한 것으로 담배세 인상 등의 금연정

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관련 판매량은 15억3000만 갑으로 전년동기보다 10.6% 줄었다. 반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1억6000만 갑이 판매되면서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올해 5월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6월에 감소했다. 지난달 7일 식품의약

품안전처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교체,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정 등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JB금융그룹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17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2018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곳곳하게 한 발 정진 꿈 이뤄주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생 200명에 장학금 1억원 전달

JB금융그룹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17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2018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고등학교 100명, 중학교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2010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1,691명의 학생들에게 7억 780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문화활동지원사업, 소외계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JB인문학 강좌 커리어 캠프 찾아오는 금융경제교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김영구 이사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곳곳하게 한 발 한 발 정진해, 반드시 꿈을 이루는 멋진 인재들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아울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NH농협은행 초복맞이 수박 나눔행사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익산시지부)는 17일 초복을 맞아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팔복동 나눔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복맞이 수박 나눔 행사를 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노동조합 위원장 오석원 익산시 지부장 및 직원들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수박을 나누어 주며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도록 응원했다.

이날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약소하지만 이 수박으로 무더위를 잠시 떨쳐내셨으면 좋겠다"며 "농협은행은 이 수박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고 멋진 은행이 되겠다"고 약

속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매년 복날이면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과일 및 복달임 음식들을 대접하는 등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경영'을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네트웍스, 상반기 농가 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 실시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채형석)는 2018년 상반기(5~6월) 전북 관내 '정읍·익산·군산·순창' 등 농가 57가구에 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과 해당 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벽지, 장판, 싱크대 및 등기구 등을 교체했다.

유금융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촌노후주택 환경개선공사를 실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한국생기원 지역경제 견인 '맞손'

전주대학교 IINC+사업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부는 17일 지역사회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ICC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대 IINC+사업단 주승 단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봉용 전북본부장 및 기관 관계자와 가족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타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